

# 준비하는 나라 - 미국

송 명 재

한전 전력연구원 방사선안전그룹장

**얼**

마전 소를 기르는 농민들이 한때는 수십만원을 호가하던 송아지를 그냥 내다 버린다는 말을 들었다. 소 값이 폭락하고 사료 값이 비싸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는 계산이다.

이와 같은 일은 미국에서도 있었다.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 때 한 농부의 푸념이다.

“나는 소를 400마리나 키워 시장에다 팔았고 내가 기른 양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무려 60톤이나 된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쇠고기 한 근 살 돈도 없다.”

당시 어려움을 겪던 농부의 삶이 존 스타인벡의 장편 소설 「분노의 포도」속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오클라호마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인 조드 일가는 모래 바람 때문에 농사를 망친 죄로 땅을 빼앗긴다. 조드의 가족은 멀리 희망의 땅인 캘리포니아에 이주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뻥과 꿈을 주기는 커녕 지주들의 착취가 더 극심하였다.

조드의 가족들은 마침내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조드 일가의 강인한 생활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삶의 나락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만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사회 문제를 예리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나이 마흔에 소아마비에 걸려 두 다리가 모두 자유

스럽지 못하게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이 이처럼 어려울 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곧 바로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이른바 뉴딜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새로운 처방은 빈민 구제와 경제 부흥이었다.

공산품과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해서 안정을 꾀하고 공공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실업자를 구제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당시 우익이나 좌익 모두에게 불만스러웠다. 좌익은 그 정책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빈민 구제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고, 우익은 또 우익대로 정부의 개입 정책이 너무 사회주의로 흐른다고 반대를 했다.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비난이 많았다.

뉴딜 정책은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회복기로 들어설 것 같던 경제가 또다시 공황으로 이어졌다. 루즈벨트는 다시 새로운 농업 촉진법을 시행하는 등 이른바 후기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확실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부 개입으로 자유 경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 정책을 짚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인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고 사물의 곁만 보고 판단하지 않은, 좀 더 균원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을 도입한 때문이라고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요즈음 미국의 일각에서는 미국인들이 에너지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있다고 걱정한다.

자동차의 기름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스위치만 누르면 항상 전등불이 켜지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환경론자들은 미국인들이 윤리적으로 과연 이처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현재의 에너지 문제는 바로 '절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절전을 하면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 필요도 없고 또 폐기물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절전만이 미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 에너지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발전소를 전혀 짓지 않고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에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미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과거 백년 동안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졌다.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또 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미국인들은 이에 호응하여 단열 공사를 하고, 겨울에도 실내 온도를 낮추었으며, 연료를 적게 소모시키는 차가 인기 있었다.

그 결과 73년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와 90년도의 안정된 시기에 미국 내 에너지 수요를 비교해 보면 90년도가 오히려 수요가 작았다.

그러나 전기 생산량 만큼은 그 전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총에너지 소비량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년대에 9퍼센트였던 것이 90년도에는 무려 36퍼센트에 달하는 등 크게 높아졌다.

미국인들은 고급 에너지인 전기에 코가 퀘인 셈이다. 전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기 소비 전망은 어떠할까? 전기 소비량을 전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미국 전력연구소의 스타트 박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전기 소요량을 예측하였다.

그 중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즉 미국민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9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계속 동결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발전소 및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발전소 등 상당히 많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연간 전력 소비 성장률이 4.5퍼센트와 1.5퍼센트 사이에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으로 전력 소비 성장률이 연간 1.3퍼센트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미국은 2010년까지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를 250기나 건설해야 한다.

요컨대 현재 미국의 에너지가 아무리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가 풍부하다고 해서 발전소를 짓지 않고 절전 운동으로 버티자는 생각은 어리석은 단견이다.

전기는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미리 미리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